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탁 계 석

시장이 청중 수준을 만든다

유럽 문화에서 부러운 것 중의 하나가 관객 기반이 아닐까 싶다. 정장 차림의 원숙한 관객들이란 연주가에겐 최상의 선물일 것이다. 좋은 관객이 좋은 극장을 만들고 고스란히 그 감동을 되돌려받는다. 거꾸로 관람에 익숙하지 않은 불편한 관객은 모두를 힘들게 한다.

때문에 오페라, 콘서트, 연극, 미술관에 안목 있는 청중과 콜렉터들이 얼마나 있는가가 도시의 문화 성숙도를 말해주는 증표다.

필자는 클래식 대중화를 위해 80년대부터 해설음악회란 것을 수백 회나 진행해 왔는데, 지금은 상당한 인프라 확충과 관객 기반의 증가를 몸으로 느낀다. 돌이켜보면 70~80년대는 르네상스, 필하모니 같은 감상실 문화가, 80년대는 오디오 및 음반 회사의 레코드 및 영상감상회가 주종을 이뤘다.

그러다 번스타인 해설음악회를 본 딴 '금난새 해설음악회'가 나오면서 대중화는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90년 들어 대학의 사회교육원과 지자체 구민회관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됐다.

2000년 들어서 예술의전당을 출발한 '11시 콘서트'는 공연의 패러다임을 바꿔 아침 시간대에 주부들과 소통하며 전국의 인기 프로그램으로 정착되었다.

직업상 수천 회의 공연을 경험한 평론가 입장에서 지역에 따라 관객 편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요즈음은 학부모들이 문화를 쫓아 주거를 이동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한다. 문화가 도시 경쟁력과 관계를 갖기 시작한 것이다.

청중이 없어 좋은 공연물을 소화할 수 없다면 공연 기획사들이 회피하기 때문에 그 격차가 날로 심해진다. 정부도 이런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란 것을 운영해 제작비 절감, 네트워크 교류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 관객들처럼 발레리나 이름을 축구 선수 이름 외듯 한다던가, 연주회에서 무조건 큰 소리로 앙코르를 외치지 않는 성숙한 문화를 만들어 가려면 비평가도 필요하겠지만 행정의 장인 시장(市長)의 마인드가 대단히 중요하다.

모차르트 시대의 귀족들은 모차르트가 작곡하고, 연주한 곡에 대해 바로 즉석에서 평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천재 모차르트도 귀족들의 입맛을 맞추며 예술성을 유지하는 줄타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서야 한다. 방송의 '나가수'처럼 활짝 여는 방식을 취하거나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야 한다. 세계 최고의 악단인 베를린 필의 지휘자를 단원들이 뽑는 것은 오케스트라가 지휘자의 독점적 카리스마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호 존중과 호흡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민주적인 절차를 채택한 것이다.

극장장, 지휘자 어느 쪽이든 인맥, 학맥, 향토색에 얽혀 형식적인 들러리 인사를 한다면 그 폐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고 결국에는 '트위트의 화살'이 인사권자인 시장을 향하게 되는 세상이다. 그것은 마치 종교시대의 도시 건물들이 사원의 높이를 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한 것처럼 오늘날엔 시장의 눈 높이가 법과 같은 결과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법인화 이후 바람 잘 날 없었던 세종문화회관을 비롯해 전국 지자체의 여러 극장과 단체에서 장을 뽑는다는 공고가 나부낀다. 삼삼오오 커피를 마시며 부임한 예술감독의 예술성에 대해 담론하는 유럽의 행복한 관객들의 모습을 우리는 언제쯤 닮을 수 있을까.

지금 트위트에 정명훈 지휘자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글쓴이의 주장대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정 지휘자를 영입한 것이 토목공사 식 발상이었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으나 토론은 소비자의 안목을 터주는 학습 효과가 있을 것이다.

청중 수준을 끌어올리는 최고의 방법은 참 능력의 리더를 뽑는 것, 그 절차와 낙점은 인사권자인 시장의 몫이다. 청중이 감동하면 박수와 앙코르가, 잘못하면 야유가 기다린다. 〈한국예술비평가 협회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 설

의회 '점거사태' 공무원까지 가세하다니

광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파행을 빚고 있다. 남구 주민과 빛고을노인복지재단 직원, 복지재단 자치위원회 소속 노인 등 70여명이 7일 오전 8시15분부터 예산 삭감에 반대하며 시의회 5층 예결위 회의실을 점거, 의회가 열리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들은 상임위에서 삭감된 남구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47억 원과 빛고을노인복지재단 운영비 8억 원을 예결위가 원안대로 통과시키려 하고, 문화재단 예산을 추가로 삭감하려는데 대한 항의 표시로 '집단행동'에 나섰다고 한다.

윤봉근 시의회 의장은 이와 관련 "남구청 공무원들과 재단 직원들이 주민들을 선동해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강운태 시장은 해당자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윤 의장의 말대로 공무원들과 재단 직원들이 주민을 선동했다면 그야말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에 대한 모독이자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특히 이날 예결위 회의장 앞에 남구청과 문화재단 공무원들도 진을 치고 있었다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주민들을 부추겼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는 일이다.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고, 이를 통해 삭감하는 것은 고유권한이다. 의회가 특정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끌려다닌다면 존재 이유가 없지 않는가.

이번 사태의 원인은 무엇보다 광주시와 의회 간에 힘겨루기라는데 있다. 민선 5기 들어서만 양측의 공개적인 충돌이 3차례나 있었다. 강 시장은 취임 일성에서 밝힌 '소통'에 대해 스스로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 사태에 재단 직원과 공무원들이 관여했다면 엄해 문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의회 역시 집행부에 대해 감정적이거나 이해관계에 얽혀 예산을 무기로 삼는다면 시민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시교육청 수능성적 완전 공개 왜 못하는가

광주시교육청이 자체 집계한 올 수학능력시험 성적을 일부만 공개해 빈축을 사고 있다. 수능 난이도 조정 실패로 중상위권 대학입시 지도에 가뜩이나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예년과 달리 지난해보다 성적이 다소 오른 1등급 비율 등만 발표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6일 고3 재학생의 올 수능 성적 집계 결과, 1등급 비율이 지난해와 비교해 언어는 1.4%P 낮아졌으나 수리가(0.3%P), 수리나(0.2%P), 외국어(2.0%P) 등은 올라 4개 영역 평균 0.28%P 상승했다고 밝혔다. 4등급까지 누계로는 전국 평균보다 영역별로 5.6%P~8.2%P 높았다고 덧붙였다. 적어도 1등급을 기준으로 하거나, 4등급까지의 누계를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에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향상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중상위권 학생들의 진학을 가늠할 2·3등급 비율을 공개하지 않아 성적 하락에 따른 감추기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성적이 약간 오른 1등급만 공개한 점, 4등급까지 누계 비교 기준을 1등급 비율처럼 '지난해'로 하지 않고 '전국 평균'으로 한 점 등은 다분히 '숫자 놀음'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교육청이 현 교육감 체제 출범 이후 사실상 첫 평가라 할 수 있는 이번 수능 성적에 너무 연연한 결과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은 "공식자료가 아니므로 나머지 등급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으나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액면 그대로라면 1등급 비율이나 4등급까지 누계는 공식자료여서 발표했다는 말인가.

시교육청은 '실력 광주'를 '숫자 놀음'으로 이루려 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2·3등급 비율 등 대입지도 관련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만 '물 수능' 탓에 대폭 늘어난 중상위권 수험생들의 입시 지도 혼선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의료 칼럼

의료관광 첫걸음, 바로 '내실'이다

서 정 성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가 이젠 국부증진의 수단이 되고 있다. 바로 의료서비스와 관광을 합친 '의료관광'을 통해서다. 우리나라 의료관광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메디컬 비자를 도입하고 유치기관 등록제를 운영하는 등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6만201명이었던 외국인 환자는 2010년 8만1789명으로 늘었고 올해에는 11만 명으로 전년대비 35%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비싼 의료서비스 대신 한국의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택하고 있는 재미교포와 한국의 선진 의료서비스를 만나기 위해 동남아인들이 기꺼이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다.

우리 시는 아직까지는 타 광역시에 비해 의료 관광객의 방문 실적이 낮은 편이다. 하지만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의료관광객 추세를 보면 전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광주시 의료관광의 큰 장점으로는 뭐니 뭐니 해도 수준 높은 의료기술과 인력, 그리고 광주시 인근에 분포하고 있는 수많은 관광자원이다. 광주시는 전문 의료인수가 1만5000여 명이 넘으며 최첨단 의료장비를 다량 보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남도의 풍경과 풍성한 음식문화는 우리 시만의 강점이다. 이러한 풍부한 인프라와 자원을 바탕으로 올해 광주시는 의료 관광사업에 막 첫 발을 내디뎠다.

현재 광주시는 외국인 환자유치 정식등록 의료기관과 함께 6개국 언어로 의료관광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다. 홈페이지 구축으로 많은 해외 환자들이 우리 시의 의료현황을 볼 수 있겠지만, 그들을 실제로 광주로 오게 하려면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교통 인프라이다. 그리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시스템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 하드웨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미 '메디 시티'라는 슬로건 아래 적극적인 의료 관광사업을 펼치고 있는 대구시를 살펴보면, 5년 후 전국 최고의 의료도시, 10년 후 동북아시아 최고의 의료도시를 목표로 삼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친절 코디네이터 교육을 하는가 하면, 의료관광 통역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의료주간을 정해 지역 최대 의료전문전시회를 열고, '대구 의료관광 바이어 초청 세미나 및 전시회' 등 의료 관련 행사들을 열어 세계적 기업의 해외바이어들을 초청하기도 한다. 대구시를 비춰봤을 때 우리 시 역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 외적인 규모의 확장에 앞서 내실을 다지는 일이다. 광주시 의료산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세계적인 의료서비스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광주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자칫 해외환자 유치사업 속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역민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의료 서비스로 어떻게 국내외 유수의 경쟁자들을 상대할 수 있겠는가.

일각에선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선 의료 민영화를 추진해야한다는 주장이 들려오기도 한다. 하지만 의료민영화는 별개의 문제이다. 실제로 의료관광산업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 70% 이상이 공공의료기관이며, 정부 산하에 'Sing Med'라는 의료관광 통합기구를 두고 싱가포르 정부와 의료계, 학계가 연계돼 싱가포르 의료관광의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광주시만의 창의적인 의료관광 모델 계발임을 시사하고 있다.

의료관광 사업이 의료의 상업화로 치우치지 않도록 언제나 경계를 해야 할 것이며, 공공성과 공익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궁극적인 의료 선진화의 목적은 광주시 지역민의 건강증진이기 때문이다. 의료관광의 첫걸음을 떼는 광주시가 잊지 않도록 당부해본다. 〈아이안과 원장〉

기 고

은퇴 후 삶은 남도에서

전 승 현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80.5세로 OECD 회원국의 79.3세를 앞지르고 있으나 출산율은 OECD 평균 1.74명에 크게 못 미친 1.23명에 그치고 있다. 그만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베이붐 세대의 은퇴시기가 시작되고 있다.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 1955년부터 1963년까지 태어난 사람들을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는데 1650만 명에 이르고 전 국민의 34%나 된다.

한국전쟁 직후 어려운 정치 경제적 여건 속에서 태어나 보릿고개를 넘기며 자라났고 70년~80년대에 사회에 진출하여 경제발전의 급격한 물결 속에서 크고 작은 희생을 감수하기도 했지만 억척스런 노력과 막강한 소비력을 바탕으로 90년대 고속 성장의 주역이요, 국가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제 60세를 바라보면서 생활전선에서 떠나야 할 시점에 이르렀고 은퇴에 대한 두려움과 새로운 삶에 대한 욕구를 해결해 줄 대책은 요원한 실정이다.

이를 은희경은 소설 '마이너리그'에서 58년 개띠 동창생 네 명의 일그러진 자화상과 그들만의 윤리를 들춰내면서 대한민국 보통 남자들의 인생유전을 재미있게 그려냈다. 한마디로 주류사회 진입에 실패하고 주도분야 없이 부수적인 삶을 살아온 베이비붐 대표 세대인 50대의 자전적 내용을 그린 것이다.

서구에서는 55세부터 75세까지 은퇴 이후 삶을 인생의 황금기 또는 활동적 성인으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활동과 대책이 다양한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실버세대와 혼용되어 쓰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미국의 시니어타운은 주로 플로리다, 네바다 및 캘리포니아 지역에 조성되어 있는데 일교차가 적은 따뜻한 해양성 기후로 대규모 리조트와 다양한 문화시설, 프로그램 등이 잘 개발되어 운영중이다.

이러한 성공사례를 교훈 삼아 우리나라에도 은퇴한 사람들이 따뜻하고 쾌적한 조건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자고 하는 것이 이름하여 '은퇴도시'인 것이다.

우리 지역은 은퇴자들이 적은 비용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바다·산·넓은 들판은 우리 지역의 대명사이면서 시·서·화·창 등 가는 곳마다 문화가 살아 숨 쉬고 먹을거리 또한 천하 제일이며 일조량이 풍부하여 골프·승마·요트 등 각종 레저활동이 연중 가능하다.

여기에 전국의 50%를 차지하는 6000㎞의 리아스식 해안과 2천여 개의 섬, 넓은 해변과 갯벌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또 하나의 볼거리이며 전국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절반 이상을 생산함으로써 생활비는 수도권의 1/4수준이고 땅값은 전국 평균 1/5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남도에서는 이러한 입지여건을 살려 2009년에 은퇴도시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선도사업으로 장흥 정남진 로하스타운에 13세대를 분양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한 결과, 국내외 기업에서 현재 3~4개 지구에 사업제안을 해오고 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 친환경 농수축산물, 저렴한 생활비와 주거비용, 그리고 볼거리, 먹을거리, 놀거리는 우리 지역이 전국 최고의 은퇴도시 입지임을 말해준다. 우리 다 같이 은퇴 후 아름다운 삶을 위해 이곳 남도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

〈전남도 건설방재국장〉

無 等 鼓

장유오위(將有五危)

손자병법 구변(九變) 제8편은 리더가 가질 수 있는 다섯가지 위험한 성격(將有五危)에 대해 적고 있다. 리더가 이런 성격을 가지면 그 자신은 물론 그가 책임을 맡고 있는 조직도 함께 영향을 받게 되며, 조직의 리더나 위정자들은 혹시 내게도 이런 위험한 성격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내용이다.

첫째, 목표 달성을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저돌형. 삼국지의 여포(呂布)형으로 용맹하기만 하고 지모가 없어 실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둘째, 위기를 맞으면 살아남기 위해 눈치를 살피는 성격(必生可侮)으로 보신형. 삼국지의 위연(魏延)과 같은 스타일로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파놓은 함정에 빠지기 쉽다. 자신의 이익에 따라 주인을 여러 차례 바꾼 사실은 그의 성격적 단면을 말해준다.

셋째, 급하게 화를 내는 성격(忿速可)으로 다혈질형. 올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리더의 위험한 성격 다섯가지 중 리더로서 조직에 해가 되는 요소는 무엇인가'라는 설문에 '급하게 화를 내는 성격'이 꼽혔다. 화를 내면 상대방도 상하지만 나도 상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넷째, 지나칠 정도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는 성격(廉潔可辱). 이른바 결벽형으로 맑은 물에는 고기가 놀지 않는다는 말처럼 정작 사람이 필요할 때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얘기다.

다섯째, 아랫사람에 대한 사랑에 분별이 없는 성격(愛民可煩). 유약형으로 잘못한 줄 알면서도 자식에게 따끔한 소리 한 번 못하고 부하에게 쓴소리 못하는 성격이다. 부하가 잘못할 때는 지혜롭게 훈계를 해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나중에 더 큰 잘못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손자는 이 다섯 가지 성격이 리더에게 화를 불러일으키고 조직에 재앙이 되며, 결국에 조직이 무너지고, 리더가 죽게 되는 결정적 최후를 맞게 된다면서 조심 또 조심하라고 했다.

작게는 조직의 리더들이, 크게는 위정자들이 되새겨야할 교훈이다.

/최재호 경제부 차장 lion@kwangju.co.kr

주부들에 자주 생기는 '팔목터널증후군' 주의 필요

가정 주부이자 병원에서 근무하는 맞벌이 여성이다. 주부들은 결혼 전부터 사실상 평생 가사일을 하게 된다. 설거지, 빨래, 청소 등 모든 가사일을 하게 되는데 그런 와중에 자신의 몸 어느 한쪽이 슬슬 망가지고 있다는걸 모르고 지나치다가 나중에 큰 병이 되는 수가 있다.

가사일로 가정주부들에게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질병이 바로 팔목터널증후군이라는 것이다. 이 질병은 지속적으로 손이 저리거나 팔목이 아픈 증세가 있는데 대부분의 주부들이 그런 사실을 잘 모른 채 그냥 지나치다가 나중에 증세가 악화되는 것이다.

나중에 증세가 악화 될 경우 잠조차 제대로 자지 못할 만큼 손이 심하게 저리고 아픈 통증을 가져온다. 원형이어야 할 신경이 좌우로 길게 눌리면서 생기는 통증이라고 한다. 이 증세가 심해지면 젓가락도 쥘 힘이 없어 그냥 내려놔야 할 정도다.

팔목터널이라고 하는 것은 뼈와 인대로 만들어져 있는 그곳이 좁아지거나 압력이 높아져 통증이나 저림 현상을 일으키는 현상을 일컬어 만들어진 말이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주부환자가 해마다 늘고 있는데, 대부분 40대 이상의 주부들이 이런 질환을 앓는다. 호르몬 변화에다 오랜 세월 지속돼 온 반복적인 가사일이 팔목 신경을 손상시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똑같은 자세로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오래 사용하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상이 있을 때는 그냥 방치하지 말고 미리 대비하셨으면 좋겠다. 그냥 참고 살다가 나중에 마비증세가 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권윤영·광주시 서구 치평동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FAX 222-8005〉	〈FA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AX 227-9500〉	〈FA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